그린에너지엑스포, 4월7일 대구서 개막

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가 4월7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.
그린에너지엑스포는 아시아 최대의 신 · 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7회 엑스포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다국적기업과 국내외 대기업, 중소기업 등이 참가해 최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다.
총 22개국 320사가 1000여개 부스를 설치했으며, 독일과 유럽기업의 참가가 꾸준한 가운데 2010년에는 중국, 일본, 타이완, 미국기업의 참가가 증가했다.
세계 신 · 재생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참가하는데 2007년 이후 4년 연속인 것으로 알려졌다.
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LG전자, 포스코파워, STX솔라, 대성그룹 등 대기업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.
또 미리넷솔라와 신성홀딩스, 심포니에너지, 경동솔라, 케이피이, 삼광산전, 디쏠라테크, 금풍에너지, 지앤알, 티앤쏠라, 티엠테크, 쏠라플러스, 썬웨어, 엘에스티에너지, 에스피브이 등 그린에너지 분야 중견기업들도 대거 동참했다.
행사기간 중에는 태양광, 태양열, 풍력 등 그린에너지 전문 세미나로 구성된 국제 그린에너지 콘퍼런스도 열렸다.

<화학저널 2010/4/12>